

Heavenly Metrics:
Thursday Morning Email Devotion for September 7, 2023

Aloha MPC 'Ohana,

It's September 7, and time for another Thursday Morning Email Devotion.

It was not quite four years ago that I was blessed to speak for the very first time with the good folks on MPC's search committee for a new pastor. I remember enjoying that first conversation very much. But as part of any discernment process, I also remember trying to gather as much background information as I could, not only about MPC, but also about life in general here on O'ahu. Much of what I learned was of course very positive (this *is* Hawai'i, after all). But there were two words of caution that I did hear again and again from people with firsthand knowledge of life here. One was "cost of living," and the other was "island fever."

With regard to the second of those words of caution, people would say things like, "O'ahu is only a small island, Ron, and it's a long way to the Mainland. Watch out for island fever."

While I appreciated all those who offered well-intended words of counsel at that time, the truth is that I'm pleased to say that "island fever" has not been a problem for Nan or me at all since we moved here. To the contrary, we still feel like there are lots of places on O'ahu that we have not yet been and there are lots of things we have not yet done.

Due to a bargain airfare which became available about six months ago, we did however recently visit another island: Rarotonga in the Cook Islands.

Rarotonga is a beautiful, still mostly unspoiled South Pacific island, and we felt very blessed to visit it and its lovely people. But Rarotonga is *tiny*. The whole island is only 26 square miles, in fact, and the population is just 13,000.

O'ahu, by contrast, is 597 square miles. It's twenty-plus times bigger than Rarotonga, in other words. And it's been funny: ever since Nan and I have gotten back home here, every time we've gone anywhere (even just to the doctor's office), we both have invariably looked at each other and said, "Wow, O'ahu feels so big compared to Rarotonga. This island is *huge!*"

Like beauty, in other words, it would seem that "big" and "small" are in the eye of the beholder. And I think that that's true not just of island geography. I think it's true spiritually too.

In the Old Testament, for example, the Book of Zechariah talks about the time right after the Babylonian Exile had ended. The Jewish people had returned home to the Holy Land, and they had finally rebuilt a Temple in Jerusalem.

But Zechariah says that a few of the old-timers, who remembered how big Solomon's original Temple had been, were disappointed because the new Temple

was much, much smaller. So, they thought, it surely wouldn't be anywhere near as good as the old Temple had been.

As a prophet of the Lord, on the other hand, Zechariah saw things differently. After all, compared to an infinite God who transcends all time and space, any human structure, no matter how large in mortal eyes, would seem *tiny*.

And yet, all of that was really beside the point. Because the important thing about *both* the first Temple and the second Temple was not their relative sizes, but to whose glory they were dedicated. Both were dedicated to the glory of God, and that's what mattered in the sight of heaven.

And the same still holds true today. Which means that even the smallest act of kindness or service or devotion which you or I may do really does matter, if we've done it to the glory of God. So too, even the shortest or simplest prayer, if offered wholeheartedly to the glory of God, is meaningful, worthwhile, and significant in the sight of heaven. Because sincerity courts for far more with God than size.

In C.S. Lewis' book *Out of the Silent Planet*, one of the chief angels in that story makes a similar point when he says, "My people [the angels] have a law never to speak of numbers or of sizes to you [mortals]. It makes you do reverence to nothings and pass by what is really great."

And I think that's right. Because greatness is not a matter of size. Greatness, in the eyes of heaven, is about the depth of one's sincere desire to glorify God in all things, be they large or small.

Me ke aloha,
Pastor Ron

천상의 지표:

2023년 9월 7일 목요일 아침 이메일 묵상

알로하 MPC ‘오하나,

9월 7일, 또 다른 목요일 아침 이메일 묵상 시간입니다.

MPC 신임목사 청빙위원회의 좋은 사람들과 처음으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축복을 받은 것은 불과 4년 전이었습니다.

나는 그 첫 대화를 매우 즐겼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러나 식별 과정의 일부로 MPC뿐만 아니라 여기 오아후의 일반적인 삶에 대한 배경 정보를 최대한 많이 수집하려고 노력했던 기억도 있습니다.

물론 제가 배운 것의 대부분은 매우 긍정적이었습니다(결국 이곳은 하와이 _입니다_). 그러나 이곳 생활을 직접 경험한 사람들로 부터 내가 계속해서 들었던 두 가지 주의 사항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생활비’였고, 다른 하나는 ‘섬열’이었다.

두 번째 주의사항에 대해 사람들은 ”오아후는 작은 섬일 뿐이고, 론, 본토까지 가는 길이 멀다. 섬열병 조심하세요.”

당시 좋은 의도로 조언을 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표했지만, 사실은 이곳으로 이사한 이후 Nan이나 나에게 ”섬 열병”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어서 기쁩니다.

오히려 오아후에는 아직 가보지 못한 곳이 많고 아직 해보지 못한 일이 많다는 느낌이 듭니다. 약 6개월 전에 구할 수 있었던 저렴한 항공료 덕분에 우리는 최근 다른 섬인 쿡 제도의 라로통가를 방문했습니다.

라로통가는 아름답고 아직 대부분 훼손되지 않은 남태평양의 섬입니다. 우리는 이곳과 그곳의 사랑스러운 사람들을 방문하게 되어 매우 축복받았다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라로통가는 _작_ 습니다.

실제로 섬 전체의 면적은 26평방마일에 불과하고 인구는 13,000명에 불과합니다.

대조적으로 오아후는 597 평방 마일입니다.

즉, 라로통가보다 20배 이상 더 큼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점은 Nan과 제가 여기 집으로 돌아온 이후로 어디든 갈 때마다(심지어 의사 진료실까지도) 우리 둘 다 변함없이 서로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라로통가에 비하면 엄청 크 다.

이 섬은 _엄청 커요_ !”

아름다움과 마찬가지로, 즉 ‘큰 것’과 ‘작은 것’은 보는 사람의 눈에 달려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이 단지 섬의 지리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신적으로도 맞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구약성서의 스가라는 바벨론 유배가 끝난 직후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유대 민족은 성지로 돌아가 마침내 예루살렘에 성전을 재건했습니다.

그러나 스가라는 솔로몬의 원래 성전이 얼마나 컸는지 기억하는 몇몇 옛 사람들이 새 성전이 훨씬 더 작았기 때문에 실망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것이 예전 성전만큼 좋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반면에, 주님의 선지자로서 스가라는 상황을 다르게 보았습니다.

결국 모든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무한하신 하나님에 비하면 인간의 그 어떤 구조도 인간의 눈에 는 아무리 커도 _작게_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실제로 요점을 벗어났습니다.

첫 번째 성전과 두 번째 성전에서 중요한 것은 상대적인 크기가 아니라 누구의 영광에 바쳐 졌는가였기 때문입니다.

둘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헌신되었으며, 그것이 하늘 보시기에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는 여러분이나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친절이나 봉사, 헌신의 행동이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행했다면 정말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마찬가지로 가장 짧거나 단순한 기도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온 마음을 다해 드리다면 하늘 보시기에 의미 있고 가치 있고 뜻깊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실함은 크기보다 하나님을 훨씬 더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CS에서는

루이스의 책 침묵의 행성에서 _(Out of the Silent Planet)_, 그 이야기에 등장하는 주요 천사 중 한 명이 비슷한 점을 지적합니다.

무(無)에 경의를 표하게 만들고 정말 위대한 것을 지나치게 만든다.”

그리고 나는 그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위대함은 크기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늘의 눈으로 볼 때 위대함은 크든 작든 모든 일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는 사람의 진실한 소망의 깊이에 관한 것입니다.

나 알로하,

론 목사